

국가(國家)의 철학: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

윤 평 중 (한신대학교 교수)

I . 왜 공화정인가?

- ❖ 헌법 1조 1항: “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”
- ❖ 共和의 어원: BC 841 西周의 폭군 려왕(厲王)이 쫓겨 난 후 14년간 空位期
- ❖ 공의 제후(共伯) 화(和)가 민중의 지지로 행정 책임 맡음
- ❖ 고대 로마: 왕 축출 후 나라를 Res Publica(공공의 것)이라 부름

- ❖ 한국 사회의 **反공화정적** 요소
- ❖ 공공의식과 공공선(公共善) 존중심 취약
- ❖ 상류계층의 병역면탈
 -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오너들
(ex. 천안함 폭침 때 MB 정부)
- ❖ 전쟁이 나면 먼저 도망가는 지도층
(ex. 선조, 이승만 대통령)

- ❖ 전관예우와 유전무죄·무전유죄
 - 법치주의 위협
- ❖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
 - 부동산 투기
- ❖ 대기업 소유주
 - 회사는 망해도 오너는 끄떡없다?
(ex. 조선업 구조조정)
- ❖ 극심한 **사회양극화**와 **천민자본주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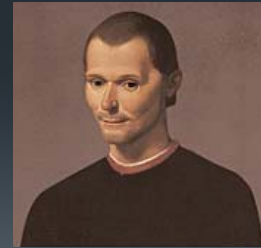


- ❖ 先公後私가 아닌 선사후공
- ❖ 법치주의 형해화(形骸化)
 - 검찰, 법원, 대기업 오너의 특권의식
- ❖ 모두가 도둑놈(민나 도로보데스)
 - 저신뢰사회
- ❖ 르상티망- 원한사회, 각자도생

- ❖ 공화정 - 자유 시민의 동의에 의한 통치
- ❖ 시민적 자유 보장하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줄여야
- ❖ 법치주의의 중요성
 - 시민적 자유는 법 '안'의 자유
- ❖ 애국적 헌정주의
 - 애국심은 헌법정신에 대한 충성

II . 마키아벨리즘으로 본 한반도 현대사 -국가이성과 공화정을 통합한 마키아벨리

- 마키아벨리(1469~1527)는
마키아벨리스트(권모술수와 정치공학의 주창자)인가?
- 1498년 사보나롤라 화형 후 피렌체 제2정무처 서기관
및 10인 위원회 사무장
- 1512년까지 14년 동안 피렌체 국정,
외교 실무책임자
- 국제 외교가에서 피렌체의 별명이
Mr. Nothing(별 볼일 없는 나라)
- 당대 이태리는 천하대란. 계속되는 외침과 내부 분열



❖ [군주론]의 어록

- “필요할 때는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”
- “군주가 빼앗은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,
이전 지배자의 친족을 남김없이 제거해야”
- “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힐지 작은 피해를 입힐지
선택해야 한다면 큰 피해를 입히는 쪽을 선택해야”
- “군주는 국민의 사랑과 두려움을 필요로 하지만,
사랑 받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
되는 게 낫다”
- “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략을 갖춘 지도자”

ex. **체사레 보르지아**(Cesare Borgia·1475~1507)

-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사생아
- 발렌티노 공작, 교회군 총사령관
- 중부 이태리 통일 직전에 좌절
- 포르투나(Fortuna·운명)와
비르튜(Virtu·용기, 과감함, 지혜, 판단력)의 이중주
- '모든 걸 대비했지만' 말라리아에 걸릴 줄은 몰랐던 체사레



- ❖ [군주론]은 비상한 시대에 대한 비상한 처방전
 - 국가이성론의 고전
- ❖ 마키아벨리의 변증법적 국가이성론
 - 국가를 구해 시민들을 살려라
- ❖ [군주론] - 지도자의 비르튜 강조
- ❖ [로마사 논고] - 시민의 비르튜 강조

- ❖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- [로마사 논고]
 - > 로마 공화정 성공 이유 분석
- ❖ **혼합정** - '모든 공화정은 두 개의 파벌을 가진다'
한 파벌이 득세하지 않아야
- ❖ **법과 제도에 의한 권력견제와 균형**
(민회, 호민관, 원로원, 집정관, 법무관, 독재관 등)
- ❖ **민주제와 귀족제의 유기적 결합**
리더십과 시민정신의 조화. 법치주의와 애국심
- ❖ 강력한 **시민군**과 지도층의 **솔선수범**

❖ **한반도 현대사**

- '군주' 이승만과 박정희, '군주' 김일성과 김정일
- **한국**은 [군주론]에서 [로마사 논고]로 성공적 이행
- 자유시민의 **공화정**으로 진화 중
- **북한**은 [군주론] 극단화 - 항상적 전쟁 상황 강변하는
선군(先軍)정치의 유일체제
- 마키아벨리 국가철학
 - 위기상황의 한시적 권력집중 벗어나 시민적 자유가
이끄는 혼합정적 공화주의로 진화해가야~
'자유로운 시민이 주체인 나라만 번영한다'.

III. 헌법철학으로 본

남북분단, 6·25전쟁, 통일

- ❖ **헌법**: 국가 통치질서와 국민적 합의가치를 통합한 최고 법규범
- ❖ **헌법(Constitution)**은 국가의 **창건(constitution)**과 분리 불가능
- ❖ 민주적 헌법이론 -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형성
- ❖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힘에 의한 지배만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지배여야

❖ **주권**=헌법 + 폭력

- ❖ 헌법은 '사회통합을 위한 공감대적 가치 질서이자 동화적 통합과정의 법질서'
- ❖ 헌법 없이 국가 없다.
- ❖ 국가가 먼저인가, **헌법**이 먼저인가?

- ❖ 한반도 현대사의 **헌법철학적** 조망
- ❖ '**분단**'의 의미: 원래 '하나'였던 그 나라는? 조선왕조?
대한제국? 상해임시정부?
- ❖ 해방공간의 한반도
 - 헌법철학의 관점에서 실질적 공백상태
- ❖ 두 개의 헌법제정권력이 **두 주권국가**가 됨
 - 결손(缺損)국가로 출발했지만 주권국가
- ❖ 그 두 국가의 극단적 대립 - **6·25전쟁**

❖ **헤겔의 국가론**

"국가는 개체이며, 개체성은 부정을 포함"

- ❖ 주권의 담지자인 국가가 다른 국가를 **부정**하는 행위가 **전쟁**
- ❖ **복수(複數)의 주권국가와 전쟁**
 - 영원한 세계평화의 유일한 방법은 주권 회수해 독점한 지구주권국가 군사력까지 독점해야.
그게 민주적 지구국가일 가능성은 낮다.

- ❖ 헌법철학의 관점에서 남북을 수렴하는 제3의 통일헌법 불가능
- ❖ **남북관계 3대 문건**
 - [남북공동성명](1974),
 - [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](1992),
 - [남북공동선언](2000)
- > 자주, 평화통일, 민족단결 원칙 공유

- ❖ **자주성**

“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... 의
지도적 지침이다”(북한헌법 3조)

- ❖ **주체사상의 자주성**

‘사람의 자주성은 어버이 수령이 주는
사회정치적 생명체’

- ❖ 자주성= 수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
- ❖ 1998년 북한헌법 서문 - ‘김일성 헌법’임을 선포

❖ **민족대단결**(북한헌법 9조)

민족은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집합 - '**김일성 민족**'

❖ '**우리민족끼리**'

= 김일성 민족(북한 인민+ 親김일성 성향의 남한주민?)

對 反김일성 민족 사이의 구별 전제

❖ 헌법 < 노동당 규약 <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

❖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"(북한헌법 11조)

❖ 북한헌법은 현대국가의 기본인 헌법의 민주적 정당성 원리 완전히 부정

IV. 공화정의 길, 대한민국의 꿈

❖ **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**

❖ 북한은 **민주주의**도 아니며,

인민의 나라도 아니고,

공화정은 더 더욱 아니다.

❖ Res Publica 한국 對 수령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북한

❖ 북한의 최대문제는 **공화정의 요소가 전무**하다는 사실

❖ 그렇다면 **대한민국**은?

자유주의+ 민주주의+ 공화정

❖ 헌법 1조 1항(민주공화국)

+ 4조(자유민주적 기본질서)

❖ 공화정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킴

❖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국가일 수 없다

- 정의와 공정성이 공화정의 핵심

❖ **공평 < 공정 < 정의**

❖ **공평**: 개인 자유 존중하는 경쟁에서
동등한 기회 제공

❖ **공정**: 롤스(J. Rawls·1921~2002)의 차등원리
- 개인에게 경쟁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되,
패자에게 재도전 기회 주고 약자 보호

- ❖ 헌법 119조 1항
"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"
- ❖ 119조 2항
"국가는 ...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..."
- ❖ 119조 1항과 2항의 갈등(자유 對 평등)은 1조 1항(공화정)과 연결해야 해결 가능

- ❖ '헬 조선', '망한 민국', '흙수저'와 르상티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
- ❖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의 생활화를 이룰까?
- ❖ 어떻게 진정한 헌법적 애국주의를 함양할까?
- ❖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?

- ❖ 성숙한 공화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꿈이다.
- ❖ 국가이성이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진화하고 헌법철학으로 완성될 때 한국몽(韓國夢)이 이루어진다.
- ❖ 우리 모두가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시민이다.